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지정테마4팀

	일시	3월 31일 12시~13시 연구관 225호(하승완 교수님 사무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조혜수(2053120)	O
		신연수(2453028)	O
		이예빈(2153115)	O
		최아론(2253109)	O
		성명(학번)	O / X
	진도	도서명: 만화의 이해	진도페이지: 0p~67p
1주차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조혜수, 이예빈, 신연수, 최아론]</p> <p>조혜수: 개론서라고는 했지만 책의 형식이 만화라서 재미에 중점을 둘 줄 알았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 시각적인 요소가 있어서 단순히 글로 읽을 때 보다 이해하기 쉬웠다. 다만,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갈피를 못 잡고 횡설수설하는 감이 없잖아 있다고 느꼈다.</p> <p>신연수: 제목만 보고 이론서인줄 알았으나 만화에 대해 깊게 탐구하는 내용이라 의외였다. 예상했던 내용과는 다르지만 만화에 대해 그냥 지나칠뻔 했던 부분을 다시 짚어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얘기하며 책이 점점 전개되어 흥미롭게 느껴진다.</p> <p>이예빈: 만화의 역사에 대해선 생각해본 적 없었는데 이론서지만 지루하지 않게 만화로 풀어 연출하여 이해하기 좋았다. 또한, 전달하고 싶은 대상자에게 맞춰 아 이코닉한 디자인이 필요한 이유가 이해되었다. 점점 이 책이 흥미롭게 느껴진다.</p> <p>최아론: 시대나 독자들의 전공 유무를 안 타고도 두루 즐길 수 있는 책이라고 느꼈다. 아직 모호한 개념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 서술된 책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글이 많다고 느껴질 디도 모르겠으나, 읽다보면 막히는 곳 없이 술술 읽히는 것이 참 잘 쓴 책이라는 감상부터 들었다.</p>	

일시	4월 15일 23시~24시 온라인(구글미팅)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조혜수(2053120)	O
	신연수(2453028)	O
	이예빈(2153115)	O
	최아론(2253109)	O
	성명(학번)	O / X
진도	도서명: 만화의 이해	진도페이지: 68p~145p



[좌측부터 최아론, 신연수, 조혜수, 이예빈]

2주차

토론 내용

조혜수: 시간의 흐름과 만화 칸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만화를 할 때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칸 분배와 시간의 장면인데, 실제로 만화를 그릴 때 참고할 수 있는 설명이 많았다. 우리에게 익숙한 일본 만화와 미국 코믹스를 비교한 것이 가장 흥미로웠다. 그냥 특유의 감성과 문화 차이로 인해 생기는 차이 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예 연출법 자체가 달랐던 것이 신기했다.

신연수: 만화를 읽을땐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쳤던 부분들 하나하나를 짚으며 왜 이렇게 연출하는지, 어떻게 그려낼수 있는지 등을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이 좋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출과 표현 또한 예시로 잘 나와 이해하기 쉬워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예빈: 칸의 간격(흐름)에 대한 연출과 시간이야기와 선이 주는 메시지들이 흥미로웠습니다. 만화에서 이동할 때 여러 가지 유형을 알려줬는데 시간 이동과 무관계 이동이 일본에서만 나오는 연출인 것을 알게되고 일본의 만화 연출에 익숙해서 그동안 봤던 만화의 호흡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개인적인 만화 과제에 큰 도움이 되었던 파트였습니다.

최아론: 만화의 시간, 특히 흐름에 관련된 파트이다보니 다른 파트보다 더 시원시원하게 읽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시로 계속해서 일본과 미국 코믹스를 비교해주는 것이 역시 이 두 국가의 만화 특징이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도 도와주었습니다.

	일시	5월 13일 23시~24시 온라인(구글미팅)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조혜수(2053120)	O
		신연수(2453028)	O
		이예빈(2153115)	O
		최아론(2253109)	O
성명(학번)	O / X		
진도	도서명: 만화의 이해	진도페이지: 146p~200p	
3주차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신연수, 최아론, 이예빈, 조혜수]</p> <p>조혜수: 6단계에 대한 설명을 흥미롭게 읽었다. 그림은 사실 만화에 있어서 전달력을 높여주는 요소일 뿐이지 그림을 잘 그린다고 좋은 만화라고 보긴 어렵다고 늘 생각했었다. 책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어서 좋았다. 내용이 어렵지 않아야 하지만 의미가 담겨있지 않으면 좋은 만화라고 하기 어려운 것 같다. 만화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6단계를 단순히 설명해주기보단 만화가의 고충을 엿볼 수 있게 하는 파트인 것 같아 와닿았다.</p> <p>신연수: 그동안 알고만 있던 단계, 기획이나 의도를 넣는 작업에서 그리는 단계까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어떠한 느낌인지 잘 나와있어 이해하기 쉬웠고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되돌아 짚어볼 수 있어 이번 파트를 아주 유익하게 읽었습니다.</p> <p>이예빈: 만화에서 글과 그림이 결합하는 방식에 대해 여러가지 방식으로 설명해준 것이 실용성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만화의 여섯단계를 설명함으로써 만화의 본질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걸모습만 화려한 만화에서 왜 공허함이 느껴지는지 알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부분이라 인상적이었습니다.</p> <p>최아론: 만화의 단계적인 접근이 재미있었고, 걸모습에 대한 생각만 하며 다가가기 때문에 만화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었구나 하는 개인적인 감상이 들었습니다. 글과 그림, '글'과 그림, 글과 '그림'의 조화를 잘 다룰 줄 아는 것이 좋은 만화라는 파트가 인상깊었습니다.</p>	

	일시	6월 2일 12시~13시 연구관 225호(하승완 교수님 사무실)	
4주차	토론 내용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조혜수(2053120)	O
		신연수(2453028)	O
		이예빈(2153115)	O
		최아론(2253109)	O
		성명(학번)	O / X
	진도	도서명: 만화의 이해	진도페이지:200p.~250p.(완독)
		 <p data-bbox="730 1151 1251 1184">[좌측부터 조혜수, 신연수, 이예빈, 최아론]</p> <p data-bbox="491 1236 1493 1397">조혜수: 만화에 있어서 중요한게 무엇인지, 어떤 것을 놓치면 안되는지 설명을 잘 해준 책이라고 생각한다. 만화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과 숙련된 사람 어느쪽도 이 책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만화를 써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얻었다.</p> <p data-bbox="491 1449 1493 1610">신연수: 색감에 대해 그때의 기술의 한계나 원고료 같은 일들도 설명하며 왜 옛날에는 그런 색을 썼는지, 또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사례들도 알게되어 흥미로웠고 현재로써도 색깔을 어떻게 써야할지 알게된 점이 흥미롭게 읽을수 있었습니다.</p> <p data-bbox="491 1662 1493 1823">이예빈: 만화를 이해하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만화의 연속 예술성에 대해 설명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한 게 인상깊었습니다. 또한, 만화가 시간과 공간, 그림과 글의 균형의 예술이라는 것이 깊이 와닿는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p> <p data-bbox="491 1874 1493 2036">최아론: 만화가 예술에 대해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예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만화를 그리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라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 인상 깊었고, 단순한 기호 문자에서 그림으로, 흑백에서 컬러로 점점 진화해나가는 듯한 순서의 서술이 인상깊었습니다!</p>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조혜수 (2053120)	3학년때 웹툰MD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책을 미리 알았다더라면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었을 것 같아 아쉽다. 그때도 만화의 이론이 가장 어려웠는데 이 책에서 그것이 너무 잘 설명되어있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때 했던 과제를 디벨롭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좋았다.
	2	신연수 (2453028)	내가 느꼈던 부분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공감하거나 또 내가 몰랐던 부분, 넘어간 부분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좋았고 교수님과의 대면을 통해 학생들만의 의견이 아닌 전문가의 입장에서 또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3	이예빈 (2153115)	만화를 보는 것만 즐겼지 창작에 대해서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두려워 했는데 이 책을 통해 만화의 본질에 대해 더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4	최아론 (2253109)	타 학우 분들, 교수님과 함께 한가지 책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좋았고 너무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나눈 대화라 더 진솔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	성명 (학번)	